

<논평에 대한 답변>

노 태 구
(경기대학교)

李元浩교수는 論評에서 本稿의 주제인 “天道敎와 人格敎育”을 간단한 연혁과 한국사에 있어서의 그것이 남긴 의의 그리고 현재 천도교가 안고 있는 제과제를 교육사상의 당면과제들의 순서로 정리하여 그의 평소의 생각을 질문을 대신하여 피력하고 있다.

단지 논평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傳來의 종교적 요소와 후천개벽이라는 理想의 구현에 한국의 土種, 즉 自主宗教로서 그 비중과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천도교가 지식·감정 종교에 머물지 않은 대단원을 열어나갈 보다 체계적이며 실천력있는 생활종교로서 재충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과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동학(천도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동학은 이미 고등·세계·문화 종교의 수준을 갖추어 인격교육을 추구하고 원만한 인격의 완성을 통해 오늘 민족사의 당면과제인 민족통일과 인류의 영구평화를 위한 정신문화, 정치사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종교사상임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동학은 우리 민족에게 東西古今을 통해 일찌기 없었던 새 가치관을 추구하는 無極大道·後天開闢의 종교사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기존의 가치관이 오래된 생명을 잃은 가치관이라면, 무극대도는 生魂을 찾은 산 가치관(生의 文化)이라는 것이다. 오늘까지 동학을 제외한 모든 東·西의 가치관은 생기를 잃은 낡은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오늘 동·서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오늘 동구의 공산주의와 서구의

민주주의는 모두 사멸해가는 문화가 되었고 生命的 自我를 상실한 죽은 철학이 되고 있다.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는가? 생명이 없는 자유, 그것은 위험한 思考이다. 서방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듯한 서구의 인권과 자유주의 등. 그러나 이들은 생명의 뿌리가 없다.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머리가 없는 서구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저 붉은 공산주의이다. 서구민주주의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 과거의 공산주의의 태동(출현)임을 인식하고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한다.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것이 없고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운명은 어떤 원인에 의한 필연의 결과이다. 경제문제만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연쇄적인 부작용만 야기하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그 실상을 보이고 있는 공산주의를 변화시키려면 서구의 자본주의도 아울러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만 변화시키는 서구식의 통일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모순 그 자체의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인격교육도 민족통일과 인류의 평화에 대한 해답도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서구식 자본주의체제로는 지구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영원히 타락하고 신속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변혁되어야 하고, 그 변혁은 공산주의로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혁의 이념과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서구의 분석적 과학적 지식이나 形而上學的 唯物論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현체제의 남·북의 당사자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양극화된 기존지식으로는 현실을 절대 풀 수가 없는 것이며 새로운 統覺의 지식이 나와야 한다. 바로 그 통각적 지식을 현대적으로 완전히 갖춘 정치이념, 그것이 바로 동학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간에 이러한 東學의 政治思想을 이해할 시간도 없이 양극사상에 짓밟히고 말았다.

이것이 또 한국 靑友黨의 역사적 발자취이기도 하였다. 양극체제를 거부한 민족자주의 최초의 민주정당이었기에 남북어디에서도 발붙일 수가 없이 외세에 유린당하게 된다. 제 땅에서 나온 정치철학이 외세에 의하여 제 땅에서 驅逐되는 이 기구한 역사적 비극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민족철학을 표방한 청우당은 남북어디에도

발붙일 수가 없어 짓밟힌 韓國靑友黨의 政治哲學! 그것이 바로 오늘 世界(南·北)가 찾고 있는 新思考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東·西平和의 핵(중심)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의 南과 北은 양극체제를 止揚하여 民族正氣를 회복하고 자주노선의 正道를 세워야 한다. 청우당의 창의적인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을 두고 진정 최고의 자기철학을 가진 민족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자기철학, 통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경제적 물질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천도교(동학)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의 인격교육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교육철학적으로 공헌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